

世界石油市場 점차 市場原理 도입

—産業研究院—

70년대 世界石油市場은 OPEC의 獨점적인 價格決定力이 지배하여 왔으나 80년대 들어서는 獨占價格體制가 무너지고 市場機能에 의한 價格決定 추세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 석유거래의 40% 정도가 現物市場에서의 수급에 따른 시세대로 이루어지고, 產油國間의 가격경쟁도 치열해져 求償去來나 할인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OPEC의 價格決定能力은 크게 저하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世界石油市場에 점차 市場原理가 도입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로 石油市場에서 공급과잉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石油市場 專門家들은 앞으로 시장수급에 따른 石油價格決定과 이에 의한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石油의 공급과잉이 獨占價格 와해시켜

70년대 石油供給의 부족과 급격한 소비증가로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일으킨 OPEC는 그동안 獨점적인 公示價格體系로 世界石油市場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石油의 공급과잉현상으로 世界石油市場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자 石油公示價格體系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世界石油供給은 최고 하루 5,200만 배럴인데 비하여 소비는 4,400만 배럴로 800만 배럴이

초과공급 된다. 세계석유공급면을 보면, 지난 73년의 제 1차 석유과동 이래 世界各國은 개발과 탐사를 적극 추진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非OPEC 產油國의 원유생산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OPEC 會員國도 그들의 生産限度인 하루 1,75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石油消費는 79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石油消費國들의 에너지보존, 대체에너지원 개발노력과 경기침체로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79년에서 83년까지 자유세계의 消費量은 13%가 감소하여 현재는 하루 4,500만 배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1〉참조).

이처럼 80년대 들어 世界石油供給이 과잉현상을 보이자 石油去來도 70년대와는 달리 獨占價格에 의해서보다는 점차 石油의 수급에 따른 市場價

〈表-1〉自由世界 石油需給 推移

(單位：百萬배럴 / 日)

	1979	1980	1981	1982	1983
消 費	52.0	49.5	47.3	45.2	44.4
O E C D	41.6	38.8	36.5	34.6	33.8
非O E C D	10.4	10.7	10.8	10.6	10.6
供 給	53.8	50.1	46.9	44.8	44.3
O P E C ¹⁾	31.6	27.6	23.5	25.0	18.5
非O P E C	22.2	22.5	23.4	19.8	25.8

註：1) 原油+NGL

〈資料〉IEA, Oil Market Report, 1984. 11.

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간주된다.

80年代 들어 現物市場 去來量 늘어

産油國間에 販賣競爭 치열

70년대에는 消費者들이 안정적인 石油供給 확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석유거래는 주로 장기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당시만 해도 現物市場의 거래량은 5% 정도에 불과하였고 現物油價는 公示價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長期契約形態의 거래가 80년대 들어서는 現物市場 거래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總石油去來의 약 40% 이상이 現物市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석유공급과잉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 現象으로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石油去來者들은 石油를 더 이상 稀少資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OPEC會員國이 장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消費者들이 언제나 구매가 가능한 現物市場을 점차 선호하게 된 것도 現物市場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産油國들 사이에는 油價不安定으로 石油收入이 감소하고 장기계약거래선들이 발길을 돌리자, 고객을 확보하고 석유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産油國들은 석유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求償去來(barter deal)나 割引販売(discounting), 原油의 先引渡와 대금기한연기 또는 유종구성비율조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가격인하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가 보잉기 구입용으로 3,600만 배럴의 原油를,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이 전투기 구입용으로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각각 求償去來한 바 있고, 이밖에 이라크가 무기구입과 송유관건설비로, 이란과 리비아가 건설공사대금 또는 무기 및 상품수입대금으로 원유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할인판매 사례로는, 이란과 UAE가 公示價보다 낮은 價格으로 공급하고 있고, 리비아는 石油租稅를 감면하여 실질적으로 價格割引效果를 얻으려 하고 있다. 유종구성비율을 조정한 경우로는, 사우디가 중질의 重質油 20%, 中質油 20%, 輕質油 60%서 지난 10월 1일부터 각각 35%, 25%, 40%로 변경, 사실상 배럴당 50센트의 公示價引下效果를 가져와 世界石油市場의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지난 10월 중순의 油價引下사태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內에서도 二重價格 형성

이처럼 現物市場去來가 증대되어가고 産油國間

대체로 現物市場에서는 석유수급에 따라 油價가 결정되기 때문에 産油國들의 公示價體系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英國과 나이지리아 등 일부 産油國들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 公示價를 現物油價 수준으로 인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자국 생산량의 30%, 이란은 1,500만 배럴, 사우디는 6,000만 배럴의 海上在庫중 1,100만 배럴을 現物市場에서 公示價 이하로 매각한 것이 밝혀졌다. 英國도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現物市場에서 판매하고 있어, 브렌트(Brent) 油價는 石油市場情勢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表-2) OPEC 石油市場占有率 推移

(單位: 千배럴/日)

	1973	1975	1977	1979	1980	1981	1982	1983
全 世界(A)	55,044	52,941	59,685	62,812	59,464	55,818	53,007	52,621
O P E C (B)	30,883	27,095	31,075	30,825	26,941	22,680	18,885	17,549
B / A	56.1	51.2	52.1	49.1	45.3	40.6	35.6	33.3

(資料) PPC, Oil & Gas Journal 各號.

□ 石油市場 □

에 판매촉진을 위한 價格競爭이 치열해지자 OPEC 내에서도 二重價格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世界石油市場에서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OPEC의 独占價格決定 기능은 크게 줄어들었다.

OPEC의 石油市場占有率은 70년대의 50%에서 근래에는 30%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會員國間의 단결력도 약화되었다(〈表-2〉참조). 70년대에는 OPEC會議가 개최될 때마다 世界經濟가 油價 폭등을 우려하였지만, 오늘날 世界石油市場의 상황은 많이 변화하였다(〈그림-1〉參照).

지난 10월말 제네바에서 열린 OPEC緊急會議에서 현 公示價 방어를 위한 減産量割當을 결정하였지만, 이 減産量割當에 있어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는 각각 長期戰의 수행과 財政의 90%가 石油收入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더구나 나이지리아는 자국산 원유의 公示價 引下의 취소를 거부하고, 나아가 生産限度의 증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OPEC內에서도 二重價格이 형성되고 있어 석유업계는 OPEC의 價格決定力에 대하여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美國의 主要石油會社들이 다투어 公示價 인하를

단행하였다.

또한 中전에는 世界石油市場에서의 油價의 향방은 OPEC의 基準油價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최근에는 非OPEC產油國油價가 오히려 OPEC의 公示價 決定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10월의 유가인하 사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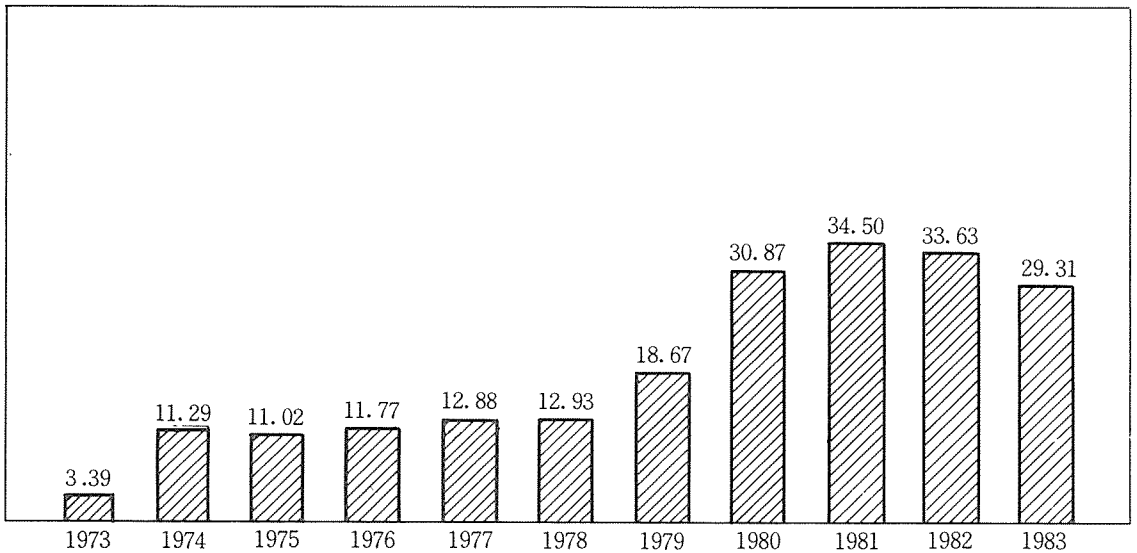
輕·重質油間 價格구조 개편 불가피

OPEC내부에서도 利害對立이 심각한 것은 油種間의 價格차별화문제이다. 특히 輕質油와 重質油의 價格차 調整을 위하여 사우디 중심의 重質油生産國과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 중심의 輕質油生産國間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OPEC이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극단론까지 일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石油消費國들은 저렴한 重質油를 분해할 수 있는 精油施設을 대폭 늘림으로써 重質油需要도 80년의 22%에서 현재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現物市場에 반영되어 輕質油價格은 公示價보다 낮고 重質油價格은 公示價보다 높아 價格差가 배럴당 1 달

〈그림-1〉 OPEC 平均公示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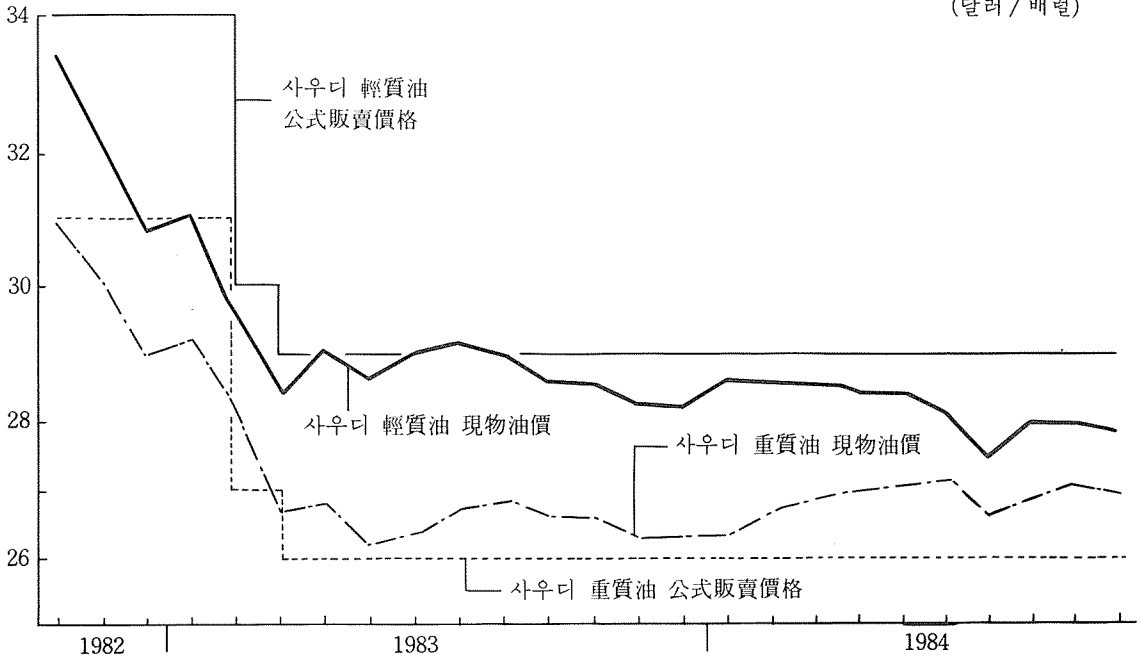
(單位: 달러/배럴)



〈資料〉 C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al Review, 1984. 9. 25.

〈그림-2〉 油種間 價格差

(달러 / 배럴)



〈資料〉 OPEC Bulletin.

러 정도로 좁혀졌다(〈그림-2〉 참조). 그러나 公示價格差는 3 달러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輕質油生産国은 油價体系의 현실적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연방은 12월 OPEC定期總會까지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公示價를 인하하겠다고 경고하였다.

OPEC은 現 油價体系를 조정할 경우 사실상의 價格引下效果를 가져와 油價戰爭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를 주저하고 있으나 앞으로 世界石油市場에서의 市場原理 도입 추세와 함께 油價体系의 전면적인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수지킨 연말연시
희망에찬 새해살림